



보도 자료

2023년까지 1억 860만 달러를 인상하겠다는
Pepco의 요청을 승인한 PSC의 결정은
요금 납부자들에게 끔찍하고 피해가 막심한 소식이었다.

2021년 6월 4일

워싱턴 DC -- 오늘 이른 오후, DC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는 Pepco의 유통 요금 1억 860만 달러 인상안과 이를 다년간의 요금 계획을 통해 시행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PSC의 승인 결정은 OPC, 연방 정부, 특별구 정부,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아파트 및 사무 빌딩 협회, 노동 조합을 포함한 이번 사안의 모든 당사자와 커뮤니티 회원 수백 명의 반대에 부딪혔다.

샌드라 매타보스-프라이 시민 자문은 “PSC의 조치는 전례 없는 조치인 동시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전 위원회에서는 Pepco에서 요청한 금액의 80%인 1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요금 인상이 승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PSC에서 승인한 이번 요금 인상액은 너무 지나친 액수이며, 이 승인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Pepco의 고객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재정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PSC는 고객들의 우려에 대해 해명을 충분히 해명을 하거나, 요금 납부자들의 어려운 요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3년 기한의 다년 요금 프로그램의 승인은 상황을 악화할 겁니다.” 시민 자문은 말을 이어나갔다. 다년 요금 플랜에 대한 지원 기록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번 PSC의 승인 결정으로 인해 디스트릭트 주민들은 꿈쩍없이 고객의 비용으로 기업과 기업 주주들의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안에 따라 Pepco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틸리티 규제기관으로서 PSC의 결정은 법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기록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서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OPC는 PSC의 지시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OPC 초기 단계에서부터 요금 납부자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위원회는 결정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OPC는 다음 단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OPC는 판결문의 내용이 공개되면 해당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에 부합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며 기록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분을 밝혀내고, 해당 부분을 재심 신청서에서 다룰 것이다.

“Pepco의 고객들은 고객 이익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는 지금의 회사와 위원회의 태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민 자문은 덧붙였다. “그게 바로 OPC가 고객의 편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미디어 담당자 연락처:
독시 맥코이(Doxie McCoy)

공보관
dmccoy@opc-dc.gov